보 도 반 박

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'21.1.17.(일)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책 임 자		담 당 자	
	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진 선 영(02-2100-2920)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 금융위원회 산업지원팀장 전 수 한(02-2100-1680)		전 동 연 사무관 (02-2100-2936) 김 선 욱 사무관 (02-2100-2862) 배 수 암 사무관 (02-2100-1681)
	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이 민 우(044-203-5170)		박 일 철 서기관 (044-203-4321)
	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 권 영 학 (042-481-4545)		김 성 일 사무관 (042-481-4382)

제 목 :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심사 기준 완화는 사실과 다릅니다.(조선비즈 1.17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
1. 기사내용

□ 조선비즈는 1.17일자 「**(단독) 정부, 쌍용차 협력업체 금융지원 확대...정책자금 심사기준 완화**」 제하의 기사에서,

① '**기간산업안정기금**'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대상을 기존의 **쌍용차의 추천을 받은 업체**에서 신용도와 상관없이 **쌍용차 협력업체 전체로 확대**한다고 보도

② 산업은행의 '**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**'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'**긴급경영안정자금**' 등의 **지원 기준**도 **쌍용차 협력업체**를 대상으로 **일부 완화**할 방침이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입장

□ 관계부처는 '20.12.21일 **쌍용차의 ARS(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) 신청** 이후 **관계기관간 공조**를 통해 **쌍용차 협력업체**에 대한 **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해 왔습니다.**

□ 다만, **개별 프로그램 내용**과 관련하여 **오해**의 소지가 있어 **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**

① '**기간산업안정기금**'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은 **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차원**에서 **필수적인 기업**으로 **원청기업**과 **소관부처 등과 협업**하여 **선정**하고 있으며,

- 동 프로그램 대상을 신용도와 상관없이 **쌍용차 협력업체 전체로 확대**한다는 내용은 **검토된 바 없습니다.**

② '**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**'은 자동차 등 주력산업 협력업체에 대한 **지원한도를 1조원에서 1.5조원으로 확대**하고, '**긴급경영안정자금**'(한도 10억원)도 **신청요건을 일부 완화**(매출액 10% 이상 감소 요건 적용 배제) 조치 시행하고 있으나,

- **쌍용차 협력업체에** 대한 **추가적인 지원기준 완화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.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